

오늘의 날씨와 생활

9월 4일 화요일 음 7월 25일 (2물)

기상정보

구름 많고 가끔 비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 새벽에 비가 온 후 차차 그치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겠다. 새벽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mm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오전	강수 확률	오후
70%	제주	20%
70%	성산	20%
70%	고산	20%
70%	서귀포	20%

주간예보

내일

구름 많음

23/28℃

모레

구름 조금

23/28℃

월드뉴스

리비아, 죄수 수백명 탈옥·민병대 충돌

캠프에 로켓 공격도 가해져

리비아에서 최근 민병대 간 유혈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도 트리폴리 인근 교도소에서 수감자 400여 명이 탈옥하는 등 혼동이 격화하고 있다.

영국BBC방송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수도 트리폴리 남쪽 외곽의 아인 자라 교도소 인근에서 민병대 간 충돌이 벌어지면서 교도소에서도 폭동이 일어나 죄수들이 집단으로 탈옥했다.

교도관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우려해 죄수들의 탈옥을 막지 못했다고 경찰이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의 대부분은 2011년 10월 민중봉기에 의해 권좌에서 제거된 무아마르 카다피 독재정권의 하수인들로 민중봉기 당시 살인 등을 저지른 무리로 파악되고 있다. 사태가 악화하자 리비아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로켓포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리비아 주민.

이와는 별개로 같은 날 트리폴리의 한 난민 캠프에 로켓 공격이 가해져 2명이 사망하고 수 명이 부상했다.

최근 며칠간 발생한 민병대 간 충돌로 최소한 39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BBC방송이 전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에 따르면 사망자 가운데 18명은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이다.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는 카다피 정권이 몰락한 뒤 민병대 등 무장한 준군사조직 간 세력 충돌로 민간인 살상 등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한리일보

제주의 대표 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강만생 편집국장 김기현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한라칼럼



이재근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제주가 환경과 역사, 문화가 육지와 다르니 제주형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견 당연히 보이지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이 제주에서만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는데는 반론도 상존한다. 자칫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지역 2곳이 도시재생뉴딜 사업지로 새롭게 선정됐다. 제주시의 남성마을과 서귀포시의 대정읍지역이다. 전국적으로 99곳이 선정됐고 작년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69곳과 이전 사업지를 합치면 200여곳에 이른다. 앞으로 매년 100곳 정도의 사업지가 늘어날다고 보면 문재인 정부 말년이 되면 전국적으로 500여

도시재생뉴딜과 제주의 선택

곳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다. 제주도는 제주도 원도심 지역을 비롯해 제주도 일도2동의 신산머루지역과 서귀포시 월평마을에 이어 2곳이 늘었으니 내년 사업지는 5곳이나 된다. 매년 최소 2곳씩 사업지가 늘고 공공기관이나 중앙 공모형 사업을 고려한다면 11곳에서 13곳 정도까지도 사업지의 확대가 예상된다.

사업지는 늘어나는데 재생사업의 준비가 사업 속도를 따라 잡기가 쉽지 않다. 정부의 추진의지가 강한 때문인지 사업지가 기반을 확보하기 전에 일찌감치 달려가는 모양새다. 재생 사업이 주민조직을 만들고 지역에서 충분히 사업내용과 사업방향을 협의한 후 진행토록 하고 있는데 비해 주어진 시간은 쫓기듯 촉박하니 일정 맞추기에 급급한 셈이다. 사업선정 후 활성화계획이라는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야 한다. 현실적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사업에 반영해야 하고 행정과 주민과의 소통을 담당할 현장지원센터도 만들어야 한다. 솔직히 마음은 바쁘는데 도내 전

면적인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번에는 사업선정 결과를 훑어본다. 주거환경 개선과 골목길 정비 등 생활 인프라 개선 사업은 어느 곳에서도 일반적이다.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창업과 문화공간 조성, 공공임대주택 등 비교적 일반적인 내용도 많이 보인다. 반면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대학 타운형 도시재생사업이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공부방 운영, 독거노인 케어서비스 등을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도 있다. 특히 한국관광공사가 지자체와 함께 콘텐츠 개발과 관광교육, 관광벤처 육성 등을 추진하는 관광 중심형 도시재생 사업도 눈에 띈다. 제주에서 고려해볼 만한 사업들이자 협업 가능한 사업으로 보인다.

도시재생이 복잡하니 어려울 것이라거나 각 부문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 말고 다른 무엇이 없을까. 이쯤에서 제주형 특수성의 가능성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제주의 지

역적 특성을 고려하는 자체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구상했으면 좋겠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업내용을 답습하는 구조가 될 필요는 없다. 중앙 공모사업의 일정이 빠듯하면 미리 사업지를 찾아내서 준비를 할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 중앙 정부의 재생사업 과정을 따라가기 전에 지역에서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이를 발굴해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될 것이다.

제주만의 사업발굴 기준과 특성을 찾아나가는 한다. 도시재생사업은 단순히 중앙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한시적인 사업이 아니다. 도시쇠퇴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시스템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럴 때 제주형이라고 해야 하나?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사업구조를 만들어야 폭발적인 도시재생 사업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형이라는 말이 도시재생에서는 웬지 꼭 필요해 보인다.

※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이뤄지고 있습니다.

열린마당

플라스틱 빨대, 아직도 쓰시나요?



고세호
제주시 생활환경과

별다방으로 이미 한국에서 유명한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오는 10일부터 서울, 부산, 제주 등 100개의 일부 매장에서 시범적으로 플라스틱 빨대 사용 대신에 친환경 종이 빨대를 도입한다고 한다.

플라스틱 빨대.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플라스틱 빨대를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생활처럼, 오랫동안 만들어 온 습관처럼 사용해왔다. 플라스틱 빨대를 처음 개발했을 때는 이처럼 획기적이고 편리한 제품이 없었을 것이다. 각종 음료를 즐리지 않고 먹을 수 있으며, 언제나, 어디서나 손쉽게 구할 수 있으니가 말이다. 이제는 빨대가 없는 음료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인 듯하다.

하지만 이제 이 생활필수품인 플라스틱 빨대를 계속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박혀

있는 바다거북의 이야기와 플라스틱 빨대를 먹이로 착각해 먹은 갈매기, 물고기는 물론,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로 이루어진 섬이 생겨 그 폐해가 고스란히 우리 사회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데에는 단 5초, 그리고 우리가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시간은 단 5분, 그리고 플라스틱 제품이 완전히 분해되는 데에는 500년이 걸린다고 한다.

무심코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잠깐 사용하고 적당한 버렸던 플라스틱 빨대가 플라스틱 제품이 갈 곳이 없어 다시 우리에게로 부메랑처럼 그 폐해가 고스란히 돌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은 이제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듯하다.

지금부터는 생각하고 자기 다짐을 넘어서서 실제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움직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각종 행사의 홍보물, 잔치의 답례품 등으로 스티어리스 빨대와 함께 빨대 세척술을 선물해 보자. 소중한 의미를 담은 선물로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뿌듯한 의미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작은 행동이지만 실천하는 환경교육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한 풀 꺾인 더위, 축제 즐기러 나갈 차례



진영표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기상청 관측 이래로 역대급 무더위 때문에 휴일에도 집에서 에어컨을 틀면서 쉬는 게 최고의 휴가라고 한다.

그래서 가족 나들이는 꿈도 꿀 수 없었다. 하지만 그 강하고 길었던 폭염도 어느새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평균 31~32℃를 보였던 8월과 달리 9월에 들어서자 낮 기온이 평년 기온을 되찾으면서 쾌청한 하루가 이어지고 있다.

연일 기승을 부렸던 무더위 때문에 바깥나들이를 못 한 도민들에게 제주의 9월 축제를 추천하고자 한다. 서울에는 경복궁 야간 관람, 고창은 메밀꽃 축제, 경기도는 시화나래마린페스티벌 등 다양한 축제가 있다. 하지만 제주도도 남부럽지 않은 다양한 9월 축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선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으로 등재된 제주해녀문화를 축제로 즐길 수 있다. 오는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구좌읍 해녀박물관에서 '제주 해녀축제'가 열린다. 축제 내용으로는 해녀 어업 보전과 발전방향, 해녀문화 예술 공연, 가족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앞서 9월 7일부터 9일까지 올해 10회째를 맞는 '산지천 축제'가 열린다. 10여년 전 복원된 산지천을 배경으로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축제는 9월 8일 플레시캠프 제주에서 열리는 '2018 제주 국제 사이클링 페스티벌'이다. 이 축제는 자전거 라이딩 기부 캠페인인 '원 마일 클로저'를 하면서 즐길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축제다. 제3세계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과 문화 발전을 위한 사회적 캠페인이라 할 수 있다. 제주를 자전거로 자유롭게 누비면서 제주의 자연을 그대로 느껴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고 해안도로나 종산간도로 코스를 이용해서 제주의 바다 그리고 여름을 느껴볼 수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축제가 가을과 함께 우리를 맞이하고 있다. 더위에 지친 우리, 이제는 즐길 차례다.

양복점 제일사의 약속

모델비례 체형맞춤정장

30년 전통, 고객 체형에 맞춘 재단
원단과 공임만의 마진을 뺀 합리적 가격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회원제 서비스

http://www.cheilsa.co.kr

제주시 이도1동 1180-12 TEL: 722-0914 FAX: 722-9098

최고급복지	맞춤정장	100만	40만
고급	"	60만	35만
보통	"	35만	25만
최고급복지	맞춤콤비	60만	30만
고급	"	40만	25만
최고급복지	맞춤바지	25만	12만
고급	"	15만	8만
보통	"	10만	6만
와이셔츠	맞춤셔츠	8만	5만

영영시간: AM 9시 ~ PM 9시 일요일은 쉽니다.
NAVER 제 일 사 검색

화복 방면

신제주 방면

제일사

동행남부지점

도남오거리

제주시청

버스정류소

광양로터리

터미널방면

문예회관

중앙로방면

클럽하우스 로비

히트니스 센터

항시 새물공급

비거리 300m

코스회원

3개월 450,000원 필드레슨 1회 이용권

6개월 600,000원 필드레슨 2회 이용권

1년 990,000원 필드레슨 5회 이용권

레이저

● 60분 8,000원 ● 9H 15,000원

● 90분 10,000원 ● 18H 25,000원

● 120분 12,000원 ● 27H 35,000원

패키지

레이저 60분 + 9H 20,000원

레이저 30분 + 18H 30,000원

레이저 60분 + 9H필드레슨 35,000원

레이저 60분 11매 80,000원

레이저 90분 11매 100,000원

레이저120분 11매 120,000원

Par3(9H) 코스 11매 150,000원

*레이저 연회원은 별도문의 바랍니다.

연회원모집중 064)

723-4800

이스트힐스골프연습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중안내길 323 (변영로 구, 코끼리랜드 맞은 편)

대형주차장
실내연습장 완비

VISION PLUS

공항

KCTV

대기고등학교

이스트힐스GC

성읍방면

제피로스CC